

상록탑

너도? 나도!



김승이
사회·문화부 부장

며칠 전 마트에 갔다가 당황했다. 우연히 한 짬뽕라면을 맛있게 먹은 후 그 라면을 사러 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면 판매대에는 각기 다른 브랜드의 짬뽕라면이 즐지어 있었다. 이름도 ‘맛짬뽕’, ‘진짬뽕’ 등 수식하는 한 어쩔만 달랐다. 옆으로 가 살펴본 스낵 판매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비슷한 맛과 모양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상품들. 바로 ‘미 투(me too)’ 제품이다. 이 용어는 1위 브랜드의 제품과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스타 브랜드를 모방해 그 인기와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방 상품을 일컫는다. ‘미 투’는 업계 사이에서 하나의 전락으로 불릴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식품업계, 그중에서도 제과업계는 미 투 전략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다. 2년 전 ‘허니버터칩’이 품귀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허니 버터’ 또는 ‘허니’ 등의 이름을 붙인 다양한 과자들이 등장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말이다. 이후에는 아몬드, 맥주, 화장품 등에도 ‘허니’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스몰비어 열풍도 마찬가지다.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스몰비어 전문점은 ‘봉구비어’가 원조다. 하지만 신촌 길거리의 견다 보면 비슷한 형식의 ‘오비어’

“

창작자의 노력을 짓밟는

‘미 투(me too)’ 제품

”

가게를 대여섯 번이나 목격할 수 있다. 과자부터 시작해 화장품, 옷, 요식업계까지 미 투 제품은 다양한 종류의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업체의 이러한 경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비슷하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보다 가격을 더 낮추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불법 짝퉁 제품에 불과하며 엄연히 저작권법에 어긋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허락 없이 도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제 체제 미흡, 업계 인식 부족, 소비자 인식 결여. 이 세 박자가 조화를 이뤄 카피 제품을 계속 생산해 낸다. 저작권법에는 각종 카피제품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재료에 ‘허니’를 추가하는 레시피나 스몰비어 가계를 구성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에 그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카피고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다. 상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법을 통해 오리지널 제품을 보호할 수 있지만, 디자인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권이 필요하다. 또 특허권을 받으려면 보통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업계의 인식이다. 매출을 최고 목표로 삼은 업계 분위기에서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소비된 창작자의 노력은 철저히 무시된다. 자신들이 오랜 노고를 들여 만든 독자적인 상품을 상대가 카피하면 소송도 불사하지만, 내가 상대를 베끼는 것은 괜찮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저렴한 것을 사려고만 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문제가 된다. 하나의 소비를 위해서는 이 상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무심코 몇백 원 저렴한 가격에 집은 상품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칼럼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다



원양해
(철학·14)

‘당신을 정말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은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사이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성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남녀는 언제나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있었으며 서로 다른 선천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어쩌면 두 개체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왜 우리는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기만 하는 걸까?

언젠가 남자친구가 물은 적이 있다. “여성학은 있는데 왜 남성학은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진 기억이 있다. “왜냐하면, 여성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이 남성학이기 때문이야.” 여성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선천적 조건인 힘의 차이로 인해 여성은 긴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남성보다 아래에 위치한 입장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인류의 진보로 단순한 힘이 아닌 이성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성은 기나긴 억압 끝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성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내재된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과

“

남성과 여성이라는

흑백 논리적 잣대에 대하여

”

제도로 인해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 가지고 있던 습관을 쉽게 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남성은 그동안 누려오던 우등한 위치를 쉽게 놓을 수 없고, 여성 역시 그동안 받던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즉, 다른 것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직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화여대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관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더 옳은 것 같다. 새내기 시절에는 공학에 가지 못한 점이 조금

은 아쉬웠고 왜 굳이 여학교가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여학교는 정말 궁극적인 집단지성의 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여학교의 학생으로서 이제야 우리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외칠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공학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비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 오랜 시간 알고 지내왔던 친구들과의 거리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그만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녀 차별은 기저에 내재해 있고 당연시되고 있다.

여학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일 것이다. 남녀가 섞여 교육을 받는 학교의 대표직을 어느 한 성이 맡는 것이 암묵적으로 당연하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학교가 공정한 교육의 장으로써 기능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런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화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보다 더 잘 전하고 싶다. 이화의 그대, 그대의 공부로써 여성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회에 살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다르지만 분명히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많은 이들이 알기를 소망한다.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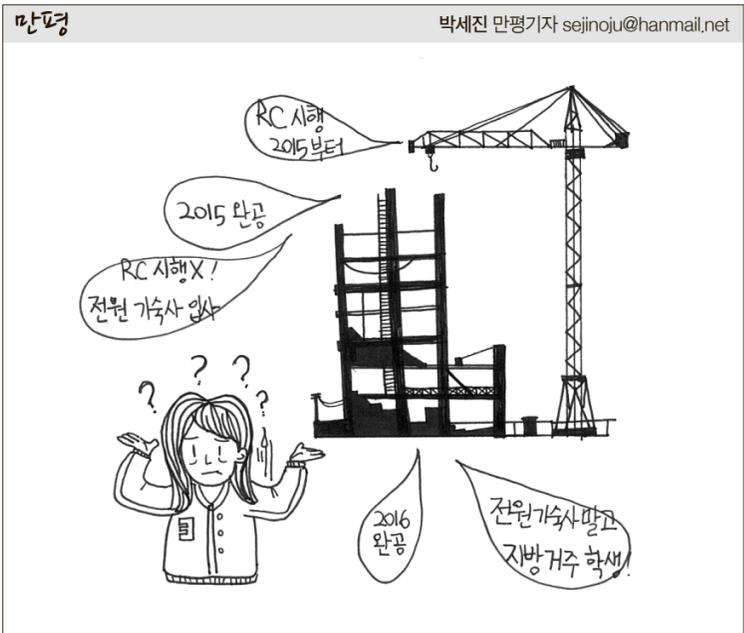
hezibuzidun RC, 학생에 정확한 정보 공지해야

본교 RC(Residential College) 시범 사업 종료와 신축 기숙사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RC는 신입생 전원이 기숙사에 입사해 인성과 사회, 글로벌 리더십 교육 등을 받는 제도다. 본교는 2012년부터 ‘2015 RC’ 신축계획을 발표하며 ‘이화의 호그와트’라며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 RC는 hezibuzidun 상황이 되어 있다. RC는 hezibuzidun 상황이 되어 있다. RC는 hezibuzidun 상황이 되어 있다.

2013년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본교는 시범사업 이후 RC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RC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본교는 RC 시범사업 종료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 신축기숙사 연계 1학년 신입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도 미정인 상황이다. 본교는 RC 시범사업 종료 이후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부 학생은 시범사업 이후 RC가 운영돼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RC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공지를 해야 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신축 기숙사 착공에서도 문제가 벌어졌다. 신축 기숙사는 작년엔 완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올해로 또 다시 미뤄졌다. 16학년 대상으로 발행한 홍보잡지 ‘이화로’에는 2016년에 신축 기숙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지방학생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규모라며 홍보했다. 그러나 신축 기숙사는 2016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9월에 신입생들의 기숙사 입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축 기숙사 완공일을 공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는 학생은 적은 상황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1년 단위로 방을 계약하기 때문에 9월에 입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게 될 때문이다.

본교가 야심차게 준비한 RC와 신축 기숙사였다. 그러나 신축 기숙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학생들 간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hezibuzidun RC와 신축 기숙사의 정확한 완공일이 공지됐다면 이런 혼란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본교는 대대적으로 RC와 신축 기숙사에 대해 홍보한 만큼 학생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바로잡는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



금주의 책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사 캐리 지음. 서울: 해나무, 2015
DNA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지는 현상, 즉 유전형은 그대로인데 표현형이 달라지는 현상과 그 현상을 일으키는 분자적 메커니즘을 후성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DNA의 운명이 ‘사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해주는 후성유전학 입문서로 후성유전학의 역사와 현황, 응용성을 두루 소개하며 일관성 생동기가 생긴 모습은 같으나 성격과 취향이 다른 이유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해당 학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어떤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무엇을 먹는지 따라 DNA는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이화인 여러분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인생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 입기도서/5층 일반자료실 616.042 C189e한

여론광장

여행없이 불행한 나?

대학생일 때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행을 1순위로 꼽을 것이다. 필자 역시 작년 겨울 이화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 홍콩행 비행기를 탔다. 그러나 그 대학생들 모두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경비를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 불편할 수도 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에 가까운 말이지만, 문제는 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한 삶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못하기에 불행한 것이라면 그 원하

는 것을 약간 자신이 할 수 있게끔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싶다. 지금 현재 듣는 교양 수업에서 첫 강의시간에 여행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교수님께서 정의하신 여행의 의미는 ‘낯설음’ 느끼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여행의 의미를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모두 현재 일상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항상 겪는 그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면 어떻게? 지하철역에서 내려 정문까지 걷는 거리의 간판을 유심히 보고, 힘들다며 불평했던 언덕 주변을 지

나가는 청솔모를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는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들 역시 포함되는 이야기이다. 삶에 있어서 매체나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여행은 인생에 있어 10년을 넘기는 힘들다. 만약 여행을 가지 않는 순간을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긴다면 아무리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일상이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라고 말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이 여행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상을 불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그 곳에 있는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자. 평소에는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보자.
전혜림(정외·15)

0217-0318 중도 대출순위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Financial accounting : IFRS edition 3rd ed	Weygandt, Jerry J.	John Wiley & Sons, Inc.	2015
2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3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Rowling, J. K.	문학수첩	2007
4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Rowling, J. K.	문학수첩	2005
5	버림 받은 황비 : 정유나 장편소설	정유나	D&C books : 디앤씨미디어	2013-2015
6	Mass communication theory : foundations, ferment, and future 7th ed.	Baran, Stanley J.	Cengage Learning	2014
7	정글만리 : 조정래 장편소설	조정래	해냄출판사	2013
8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James, E. L.	시공사	2012
9	드래곤 라자 : 이영도 장편소설	이영도	황금가지	1998
10	(Hackers) 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 reading 2	해커스어학연구소	해커스어학연구소	2011
11	유평토피아 : 존재하지도 사라지지 않은 나라	More, Thomas, Sir.	돌출새김	2006
12	(강신주의) 감정수업 :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열망	강신주	민음사	2013
13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구인환	신원문화사	1993